

여성이 열어가는 새천년 - 딸들에게 희망이 되는 큰 일을 시작합니다.

1. 문제제기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여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해 왔다. 논리와 남성의 근육질에 표상되는 20세기의 거대 기계문명과 달리 여성의 특성으로 꼽히는 감성과 창조성을 증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엘빈 토플러는 21세 정보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상호협력하는 수평적 협력관계가 사회 기능의 기본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한다.

1967년 11월 유엔은 결혼, 가족, 고용 등에 있어 여성의 법적인 평등의 실질적인 보장을 명시한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채택한다. 이 선언은 유엔 헌장과 세계 인권선언, 기타 여성의 권리에 관한 법적인 기반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여성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원인을 제거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발전에 있어 여성의 역할 인정과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 강화를 위해 유엔은 1975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 여성 회의에서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International Women's Year)'로 선포하고, 1985년까지를 '세계여성의 10년(United Nations Decade for Women, 1975-1985)'으로 정한다. 그리하여 여성의 평등·발전·평화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고 여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 모색에 힘을 기울인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문맹퇴치, 남녀 동등 임금, 모성 보호, 공적 생활에의 여성의 참여 확대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 지는 시기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변화들은 세계의 시선을 여성 문제로 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여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면서 여성의 평등한 권리가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밝히고, 여성이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미래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자 결과라고 선언한다. 즉, 인류사회 발전은 여성의 참여없이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에 들어와 여성문제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며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아래 국가정책의 일부분으로 여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물론 그 이전에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일부 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전 여성을 대상으로 남녀 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들은 8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되었으며,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들도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였다.(정무제2장관,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그러나 각종 통계에 나타난 세계여성들의 현실을 보면 21세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암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담에 제출된 유엔의 각종보고서와 통계를 종합해서 재구성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강요당하는 여성의 숫자는 "중국에서부터 남아시아를 지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에 여성이 원태보다 약 1억명 정도 모자란다."고 말한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여성은 사회 경제적 차별, 법적, 정치적 차별, 그리고 문화적 차별속에 살고 있다. 채용이나 승진 및 임금책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가족별 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남녀차별적 요소, 의사결정 참여에 있어서 낮은 비율, 그리고 출생시부터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반응

이나 심각한 남녀성비불균형 현상 등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이다.

이런 차별적 가족관계로 인해 여성은 태어나기 전부터 여자라는 이유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최근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남녀 성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높아진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숫자)가 97년에는 108.4명을 기록, 정상수준(103-107명)에 근접했다. 1990년 116.7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불법 성감별 규제, 남녀평등의 확산 등으로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녀성비불균형은 심하다.

2. 한국여성의 현실과 새천년의 과제

1) 여성과 가정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의 이차적인 집단으로 간주되었던 가족도 그 기능 및 역할이 함께 변화하고 있다.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형태의 2대 가족 외에도 모자가정, 부자가정, 독신, 노인단독가구, 복합가정, 소년 소녀가장 가정 등 다양한 형태를 한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와 역할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가족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가졌던 기능을 점점하고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역할들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족기능 및 역할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원 체계는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의 가족제도는 아직도 너무나 굳건한 가부장제에 기초해 있다. 집안의 호주는 남성이고 여성은 그에 종속돼 있어 남존여비 사고를 지속시킨다. 여성은 직업이 있든 없든 '주부'(주인의 아내)라는 의미)에 불과하고 사회에서도 남성의 보조세력에 그친다. 성역할 분리. 딸과 아들에 대한 기대 분리 또한 분명하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남아선호 열병은 마치 콩밭에서 콩이 나듯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특히 자식욕심이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가 '우월한 성'을 선택하려 하지 않았겠는가? 여남성비불균형 문제를 다루면서 흔히들 문제 삼는 것 중의 하나가 '유교적 전통' 혹은 '구시대적 사고에서 깨지 못한 동태한 국민의식'이다. 따라서 국민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기까지는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딸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면 '미래의 동등에 대한 확신'만으로도 그리 부족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미래를 살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남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기본골격이라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호주제도이다. 이것은 여성들을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 그리고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아들이 호주가 된다. 과거 남성중심의 강력한 가족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하였던 호주제도가 평등한 부부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 시대인 지금에도 여전히 살아 있다.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법적, 사회적으로 남녀를 평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아직도 갖고 있으면서 이 사회에 성비불균형이라는, 설명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 시대인 지금에도 여전히 살아 있다.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에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법적, 사회적으로 남녀를 평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아직도 갖고 있으면서 이 사회에 성비불균형이라는, 설명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가치관과 의식구조는 당연히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여성권한수준 세계78위

99년 유엔이 여성국회의원, 행정관리직 숫자, 남녀소목차별 기준으로 여성의 정치 경제활동 및 정책결정과정 참여도를 평가한 여성권한척도는 한국이 102개국중 78위로 평가됐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많은 정책이 수립되었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녀가 동등하게 발전의 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며, 여성이 경제적인 발전에 남성과 동등하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비공식적인 분야에서 종사하는 관계로 공식적인 통계를 통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와 같은 남녀차별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직에 참여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력의 결과 여성의 교육과 보건 분야의 발전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정치·경제적 활동에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각 역사의 발전단계에는 언제나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동반하여 여성의 지위는 한 나라의 번영과 발전의 척도가 되었다. 인류의 복지와 진보한 남성과 여성의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의 지향과 일치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 생활에 최대한 동등하게 참여할 때 가능한 것임을 일깨워주었다.

더군다나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특성에 따른 정치적 리더십은 대상과 거리를 두고 지배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 특유의 감수성, 유연성, 구체성, 관찰력, 대화 지향성, 관계지향성은 다양성 속에서 총체성을 확보해 가는 대안적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3) 여성의 공직 및 정치참여

21세기는 여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듯 지난 2월 6일, 여성대통령과 여성주지사가 동시에 탄생했다. 6일 치러진 핀란드 대선에서 타르야 할토넨(56) 외무장관이 여성으로서는 핀란드 역사상 첫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같은 날 일본 오사카부 지사 선거에서는 무소속의 여성후보인 오타 후사에가 지사에 당선됐다.

이와 더불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도 뉴욕주 상원의원 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미국 선거직 공직에 출마한 첫 대통령 부인이 됐다.

현재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을 맡고 있는 여성은 스리랑카의 찬드리카 쿠마라통가 대통령 등 8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주제로 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회의가 끝난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국제의회연맹(IPU)의 한 보고서가 1월 19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99년 8월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 정부의 여성각료 평균비율은 11.7%이며, 45개국은 아예 단 한명의 여성장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최소한 1명의 여성장관을 둔 145개 국가에서도 여성각료의 역할은 사회복지 및 문화, 의료 등 전통적인 여성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수준은 더 심각하다.

여성의 정치·행정에의 참여는 여권신장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국가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율은 극히 저조하고 바로 이러한 상황은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엿보여 주고 있다.

한국 여성들의 행정부내의 참여는 최근까지 특정직의 교육 공무원과 고용직을 제외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1989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시로 모든 직종에서 국가 공무원의 남녀채용 기준의 차별이 없어지고 1989년 국가 공무원 임용시행령과 1991년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과 함께 여성의 공직진출의 길은 크게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3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1%정도이고 5급 이상의 공무원도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제헌국회 부터 현 15대 국회에 이르기 까지 역대 여성 국회의원의 총수는 83명(전국구 및 유정희 승계의원 까지 포함), 전체의원의 2.1%에 불과하다. 15대 국회의 여성 의원은 모두 11명으로 전체의 3%이며, 이는 전세계 평균치인 11%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여성 공무원의 경우 현재 정부는 5급 행정직과 외무직, 7급 행정직의 공채에 있어서 여성 합격률이 일정 수준까지 높아지도록 채용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2000년까지 20%로 잡고 있어서 공직에 있어서의 성별평등을 줄이는데에 상당히 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정부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도 2005년까지 30%로 상향조정하고 있음은 여성정책이 진일보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공번 선거법 개정에서 비례대표 의석 30%를 여성할당제로 개정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 문호를 확대한 것은 그 동안 여성계가 요구해온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사회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 여성문제의 경제적 배경 - 여성과 노동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현상은 그 정도를 더하여 퇴출 혹은 권고사직에 있어서 우선 순위는 여성이고(여성신문, 1998년 11월 6일), 경제적 위기를 전후한 우리나라의 여성의 지위를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없지만 IMF이후 여성의 경제적, 가족 내에서의 지위는 이전에 비해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낮고, 무급종사자나 일시고용비율은 높고, 저임금에 남녀간의 높은 임금격차 등 열악한 수준에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입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여성들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에의 욕구와 필요성은 점점 더 커가고 있다.

여성이 사회발전의 수혜자 및 기여자로서 차별없이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여성의 지속적이고 평등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성이 사회발전의 수혜자 및 기여자로서 완전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 가사노동을 포함한 무보수 노동의 가치인정, 그리고 자원활동을 포함한 사회활동에의 완전한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 특히 무보수 노동의 가치인정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총생산량(GDP)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노동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문제는 심각하다. 생산직 노동력의 공급부족으로 중소기업은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대졸여성의 취업률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여 '96년 59.3%를 보이고 있으나 남학생 대졸자 취업률 77.2%보다 낮을 뿐 아니라 50대 기업에 취업한 여성대졸자는 11.3%에 불과하다(김정자, 1998). 더욱이 50대 그룹 여성대졸자 비율은 전체 4년제 대졸여대생의 5.8%(남자32.2%)에 불과해서 여성대졸자의 취업난은 심각하다. 즉 고학력여성은 취업난을 겪고 있고 생산직부문에서는 인력부족난을 겪고 있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3년 현재 기준으로 생산직부문에서의 인력부족에 의한 경제적 손액은 약 17조원에 이룬다고 경총이 분석하고 있다. 이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 증가만으로도 현재의 노동력 부족으로 추정되는 17만 5천명의 대부분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는 임시적 정책이 가져오는 여러가지 후유증 및 역기능을 고려하면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기회를 포함하는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의 남녀평등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근로여성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1987년 12월에 제정했고 그후 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1989년 4월, 1995년 8월 2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법은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생활보조금과 자금융자, 교육 배치, 승진, 정년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사업주에게 여성, 혼인,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특히 동일가치 노동으로 평가되는 일에 남녀가 함께 일하면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 등을 노동과 취업에 있어서의 성평등의 확보를 위해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동일한 5인 이상의 사업체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나 동일가치/동일 노동 조항의 구체적인 기준 설정과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은 이 법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또한 이 법은 사업주에게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여성이나 그를 대신할 남편근로자가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또 남녀평등의 확보에 공헌할 수 있는 법이기는 하나 앞에서 소개한 스웨덴의 경우처럼 보다 과감한 지원을 정부가 아끼지 않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 것임을 21세기 여성정책의 또 다른 과제이기도 하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점점 고용인력이 모자라는 우리의 경제현실을 감안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기는 하나 이것이 단지 유휴 여성 노동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경제제일주의적 정책의 산물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의 확보가 임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 정부나 공공기업은 여성 고용에 있어서의 성차별적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고 교육, 홍보, 여성의 취업훈련, 성평등적 고용과 대우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뒤따라야 하고 이것은 보다 평등하고 민주화된 내일의 복지 국가의 건설에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3. 한국교회여성의 현실 - 딸들이 살아갈 21세기

오늘 한국교회는 여성신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실력이 실질적으로 여성에 의해서 지탱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러나 한국교회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교회선교정책의 결정과정에 주변화되어 있고, 여성 복회 안수가 허기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교회 현실은 여성목회자가 설 자리가 없는 형편이다. 또한 장로 및 주요 임직도 대부분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의 역할은 언제나 식사, 뒤통다거리 등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새 밀레니엄 시대인 21세기에는 하나님의 새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딸들이 살아가는 21세기를 위해 우리 선배여성들이 교회에 있어서 특히 교역에 있어서 성차별 없는 선포와 함께 동등한 역할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터를 닦아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딸들이 아들들과 더불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선배여성들이 해야 한다. 새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내야 하는 것이다.

성서적 새창조관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행위를 말한다. 하나님의 새창조 행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이미 새로운 관계양상을 발전시키도록 자유롭게 되어 있다.

창1:28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아담이란 히브리어는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인간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로 이어지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즉 양성으로 창조되었다 함을 말하고 있다. 또 계속해서 1:28은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즉,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향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끝이 나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성적 구별은 있으나 우열이나 지위의 고하나 직분의 차이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1장 기사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던 것이 인간의 불복종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못된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모든 것이 서로 분리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바론 자리에 바로 놓이면, 인간과 이 땅위의 모든 피조물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사 11:6-9, 호2:18-20) 그것이 바로 새창조이다. 이미 우리는 성이나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장애물을 넘어서서 동등한 동역자로 살 수 있게 능력받는 것이다. (갈 3:28, 고전 12:123)

여기에 참석한 전국에서 올라온 연합회 임원들은 새천년 하나님의 새창조의 역사에 부름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새창조의 역사에 "새천년, 주요 나를 보내소서"하고 응답하며 나선 분함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딸들만큼은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살았던 것처럼 성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가슴에 응어리를 갖고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21세기를 열어간다. - 한국여성기금 조성

1) 한국여성기금 취지

21세기의 시작에서 우리 딸들이 살아가야 할 새천년은 정책결정권한적도 세계 78위,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48.2%), 불안정고용 증가 및 여성의 빈곤화, 인습에 가까운 가부장적 가치관(호주제도 등), 극심한 여성의 성상폭화, 성폭력·가정폭력의 증가, 여성의 정보결핍 현상 등 여성의 미래는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여성의 능력을 사회발전의 기반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천년 우리 딸들이 살아갈 세상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와 힘을 필요로 하는 새 밀레니엄 시대는 여성의 잠재성이 주체적인 사회 원동력으로 발현될 것을 요청합니다.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풍요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 옛것과 새로운 것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 세계화, 개방화 속에 지방분권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회, 더불어 남녀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발전하는 활기차고 따뜻한 사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평등과 편견에서 벗어나 남녀의 조화로운 공존 속에 모성이 보호되고, 이 나라에서 세계의 여성지도자가 나오며, 각 분야의 훌륭한 여성인력이 국가경제발전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세상, 특히 여성의 정치계 진출이 확대되고, 노동자, 농민, 빈민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세상, 그런 여성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딸들도 아들들과 함께 21세기 한국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우뚝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그저 오는 것은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딸들을 위해 우리들이 지금 2000년에 무언가 큰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딸들이 21세기에 진정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길러지고, 그들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 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새천년을 열어 주고자 지난 99년 12월 6일, 130 여개의 여성단체와 사회 각계 대표들이 함께 뜻을 모아 한국여성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한국여성기금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여성기금으로서 새 시대 새 천년의 새벽을 여는 데 큰 몫을 다할 것입니다.

2) 한국여성기금의 사업목적

한국여성기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남녀가 조화롭게 공존, 발전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하고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평화 공존의 21세기에 걸맞는 남녀 평등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의식 개발 사업 지원

- 남녀의 동반자적 관계, 민주적 기질을 위한 의식개발사업 지원
- 우리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그릇된 남녀 차별관행을 바꿀 수 있는 사업 지원
- 제도개혁, 연구 및 교육사업, 언론시정활동, 여성피해사건 소송지원 활동

②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여성의 능력 개발

- 산업의 각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을 발굴 선정하여 해외 파견, 장학금 지급
- 여성의 잠재적 능력 개발 및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사업 지원

- 정보화시대의 여성 전문인력 양성 지원
- 문화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여성활동 지원
- ③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활동지원
 - 학대받는 여성, 모자가정과 노동자, 농민, 빈민, 매매춘 여성등 소외계층 여성의 권익 향상과 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빈민층 여성의 자립을 위한 소액융자 사업
 - 가정폭력 피해 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 품 위기여성을 위한 긴급 지원
 - 여성의 인권보장, 폭력예방활동 지원
- ④ 여성의 정치적 능력 개발 지원
 - 여성의 정치적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 지원
 - 여성의 의회진출, 고위 공직진출을 위한 활동지원
 -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지원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지원
- ⑤ 국제사회에서의 여성활동 지원
 - 국제연대활동 지원
 -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국제기구에 여성 파견, 훈련 지원
 - 개발도상국 여성활동 지원
 - 초·중·고·대학생들의 국제화에 대비한 시각을 넓히기 위한 국제 이해 교육 지원
- ⑥ 여성운동 지원
 - 여성단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 여성운동지도자 양성을 위한 각종 훈련 프로그램 지원 및 장학사업
 - 여성단체 활동가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 여성 연대 활동 지원
 -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 ⑦ 특별사업으로 (가칭)한국 여성의 전당 건립
 - 여성의 역사관, 미래관 등 전시관을 설치하여 사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여성활동의 공간을 제공한다.

5. 향후 계획 및 전망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2000년 한해는 1천억 기금 조성을 위해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연다"라는 제복아래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이 캠페인은 단순히 기금을 조성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캠페인 참여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여성차별의식들을 개혁하고, 새천년 딸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종교계는 종교계 특유의 방식으로, 여행사와 함께 외국 관광객들로부터 희망의 동전을 모으며, 거

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학생, 여성단체, 직장인,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백화점과의 바자회 등 다양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큰 일인 기금조성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백만인 개나리 회원(1만원 - 10만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딸을 가진 어머니들과 본인 스스로도 딸인 우리들은 모두 1만원 이상의 개나리회원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밀레니엄 시대 주체적인 사회 원동력으로 발현될 여성의 잠재성을 일깨우고, 남녀 평등의 사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전국민적 의식개혁 캠페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5월 캠페인과 함께 유산기증 운동, 기장여신도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결혼, 장례 등 예식 간소화 운동과 결혼축의금 및 장례부의금을 여성기금으로 기부하게 하는 등 캠페인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는 기금조성에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투명하고 지속적이며 명예로운 기부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회도 이러한 여성차별의 일익을 기독교신학이나 교회제도가 담당해 왔던 것을 자인하며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간사회의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지향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도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여성차별신학의 시정없이 참여된 기독교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또한 여성을 위시한 약자억압의 구조에 대한 시정없이 환경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가운데서 "21세기는 여성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여성원리가 지배하는 세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계시처럼 예언처럼 세상에 퍼진 것이다.

기독교는 어느 시대에서나 체제유지를 위한 과오도 많이 범해왔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의 해방적인 측면에서 고통받고 차별받는 인간의 문제에 관여해 왔다. 사회적 약자 편에서 권력있는 자들을 질타하던 예수의 선교활동을 본받아 온 이러한 기독교의 전통에서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의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큰 일에 동참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민간 여성재단들이 창립되어 있고, 그동안 한국 여성단체들이 외국재단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제는 우리 나라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들의 딸들을 위해 여성재단 형성에 힘을 쏟을 시기인 것이다.

성서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디아코니아)가 믿음의 열매(로마 15:28)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복음서들도 나눔과 섬김의 행위가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본분임을 증언하고 있다.

사회의 약한 곳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1세기에는 우리들의 딸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민간여성기금' 모집에 참여해야 한다. 1천원도 좋고, 1만원도 좋다. 유산의 10%를 내놓아도 좋다. 한번이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보내도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이 기금에 동참해 주길 ...